

교육제도 변화로 참고서시장 지각변동

대입수능시험 실시·국민학교 시험폐지 등 맞물려 업계판도 재편 조짐

국민학교 교과목시험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고교입시 폐지 예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일부대학의 본고사 부활 등 교육제도의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인 '개혁'에 따른 출판시장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참고서시장의 분할화와 수학능력시험대비 교양서의 약진이 그것이다. 출판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참고서 시장이 바야흐로 그 패권을 교양도서시장에 넘겨주는 형국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징조는 차라리 출판 코너에 가까웠던 10월 11일자 某조간신문 '주부방' 두 면에서도 금방 확인된다. "비빔밥—영양맛고 맛도 일품" "피임약 장복하면 조기폐병 위험" 기사를 제외하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독서지도 특집면에 가까웠다. "아이와 함께 읽는 책" 외부 기사, 유치원생들의 서점 견학 기사, 부모도 동화를 읽자는 계몽성 취재기사, 엄마와 아이 대상의 신간안내가 실렸고, 단신으로는 흥사단의 학부모 글쓰기교실 개설을 공고하는 기사가 실렸다. 수학능력시험 시행 등 교육개혁이 시행된 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기 시작할 독서열풍(?)의 한 단면도가 아닐 수 없다. 주부를 위한 특집면이 자녀 독서교육용으로 바뀐 셈이다. 그에 따라 출판계 내부의 변화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제도변화에 따라 출판시장변모 조짐

참고서시장의 경우는 "재판기"라 회자될 만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제도의 변화가 기존의 암기 위주의 학교교육을 폭넓은 독서를 통한 이해 위주의 것으로 강요한 데 따른 현상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참고서 전문출판사들의 고전, 일부 사회과학 출판사 및 '무실적 출판사'의 교재성 교양서 출간 붐, 신생출판사의 참고서시장 진출 등이 참고서시장 재판기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꼽힌다. 이 재판기를 맞이한 출판사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명암을 나누어 갔다.

기존의 대형 학습참고서 전문출판사는 제도의 변화에 따른 그간의 발빠른 응전력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능력시험 등이 정착될 때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는 게 출판계의 중론이다. 각급 학교의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다종의 새로운 참고서를 출간하고 있지만 총매출액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다소 길어지리란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등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에 따른 출판시장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참고서시장의 분할화와 교양서의 대약진이 그것이다.

교양서시장은 조만간 참고서시장의 규모를 앞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제도의 변화가 강요한 독서교육의 열풍은 출판계의 영업전략도 바꾸어놓고 있다.

망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장은 국민학교 참고서 분야이다. 이번 학기부터 국민학교 교과목 시험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서, 새 학기마다 대목을 구가하던 국민학교 참고서시장은 올 2학기 들어 썰렁해졌다. 국민학교 저학년 대상의 참고서 매출액도 90% 가량 감소했으며, 3~6학년의 것도 50% 이상 감소했다고 교보문고측은 밝힌다. 게다가 '교육의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인해 대체참고서 개발도 매우 더디고 힘들게 진척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예컨대 각 지방의 사회교과서는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차별화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를 이뤄내기가 여간 만만치 않다는 것.

중고등학교 참고서시장 역시 '오십보백보'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출판사나 서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전년 대비 약 40%의 매출액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동아출판사의 표영명 영업부장도 "올해의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5개 시리즈 35종의 참고서를 출간했지만, 총매출액은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참고서시장은 바야흐로 교육패턴의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참고서가 출간됐지만 잘 팔리지는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속에 놓여있는 형편인 셈이다.

반면, "올해는 무실적 출판사의 수가 크게 줄 것"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예측이 나돌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양도서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나오고 있으며, 판매량도 부쩍 신장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므로 수치를 댈 수는 없지만 각 대형서점의 매장을 살펴보면 그 신장세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서 매장에는 최소한 세 코너가 개설돼 있다. "대입 본고사 대비서" 코너, "TV방송교재" 코너, "청소년 필독 교양서" 코너, "수학능력대비 읽기·탐구 자료" 코너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교양서 코너에는 "사고력·추리력·판단력을 키워주는 길잡이책" "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 대비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의 길잡이" 등의 큼직하고 선명한 부제가 명시된 책들이 빼곡빼곡 진열됐다.

교양서시장, 참고서시장보다 커질 공산

그러나 출판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들 교양서들이 참고서시장의 '손해'를 벌충할 만큼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출판사와 서점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문고인 '담쟁이교실'을 펴내고 있는 실천문학사의 이상씨는 "「선생님과 함께 읽는...」 시리즈에 보여준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의 호의적인 반응은 고무적이지만 수능시험 특수라 불릴 만큼의 반응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청소년 대상의 교양서들은 대개 장기적 전망 없이 시류를 좇아 표지와 제호부터 수능시험 대비를 표방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이다. 또한 과학입문서 내지 과학교양서 전문출판사인 전파과학사의 손영일 사장은 "수능시험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 영향이 피부에 닿는 정도는 아니고 느낌이 오는 수준"이라고 전한다. 그는 이어서 "일부 대형서점과 출판사들이 그들의 판매전략 때문에 다소 줄속성 출판물일지언정 노골적으로 수능시험 대

비서임을 표방하는 책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새로운 교육제도가 반강제적으로 마련해준 독서열기는 진지한 교양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참고서쪽으로 불고 있는 셈이다. '새 참고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우선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이제스트류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과학동' 관련 단행본을 지속적으로 펴내고 있는 범양사의 이만근 이사(49)는 "과학교양서조차 다이제스트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아들도 고3수험생인데 "범양사책은 안 읽고 다이제스트 과학교양서를 읽는 형편"이라는 것. 이는 수학능력시험이 정상제도에 오르기까지의 과도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다급한 수험생의 현실적 여건으로는 그 과도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그는 진단한다.

함량미달의 半교재성 교양서도 많아

줄속출판의 문제도 크게 거론된다. 판·저자 이름도 없이 출판사 편집부 명의의 '교양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교양서를 예로 들자면, 출판사측은 과학저널 리스트가 몇명 없는 우리 형편에서 교양과 학습 양쪽을 만족시킬 만한 필자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의 결함에 대한 변명은 되지 못한다고 전문필자들은 비판한다. 교사중심의 과학대중화 단체인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현종오씨(37, 서울 인현고 화학교사)는 "이야기 〇〇〇〇"를 예로 들며 "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특수분야만 표나게 내세운 읽을거리란 재미는 있을지언정

교정·편집 전문회사

'삼연편집실' 을 소개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집필 및 교열에서부터
편집·교정·인쇄에 이르기까지
출판에 있어서의 전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난도(難度)의 출판물이라도
소수 정예주의로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고를 맡겨 보아 주십시오.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식구를 찾습니다

편집회사의 업무는 늘 까다롭고 바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업무를, 그러나 교열이든 교정이든 레이아웃이든 막힘없이 제대로 일을 처리해 낼 줄 아는 역량 있는 편집 실무자를 찾습니다(편집 차장급).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 1통(전화번호 명기)과 자기소개서 1통(원고지 5매 이상)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사절하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분께는 개별통지를 하여 면접일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녀를 구별하지는 않으나 나이는 35세 미만이 좋겠습니다.

최근 본사를 통해 발간된 책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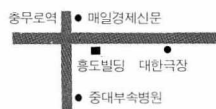
잠실성당 15년사/전주교 잠실교회/류영도(전주교 잠실성당 주임신부) 펴냄/376쪽/비매품



논어신강의/도서출판 명문당/김성원(작고·유고집) 옮겨꾸림/668쪽/정가 10,000원



아돌프 히틀러(2권)/도서출판 삼연기획/김재모(학생·개인출판) 역음/각권 370쪽/정가 각권 5,500원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7(응도빌딩 602오)
전화: 271-0862, 0459/팩스·모뎀: 277-3166

교양과 학습의 어떤 측면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논리학습서 역시 그같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책은 흔치 않은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바람직하고 폭넓은 제도의 변화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행본의 홍수 속에서 판매량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탄실함을 보여주는 출판물은 '독서잡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제도 변화 이전부터 현재도가 추구하는 방향의 교육을 실시했던 전·현직교사들이 쓴 책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월간 「우리교육」의 조성희 기자는 "출판계의 전반적 불황 속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며 계속 팔리는 책"으로 "대입 수험생을 겨냥한 독서잡지"를 꼽는다. 독서잡지의 '원조'이며 선두주자인 「독서평설」을 위시하여 「독서광장」「글과 생각」「월간 디딤돌」「만화 독서광장」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한샘출판사 등 기존 참고서출판사에서도 창간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독서평설」의 정순모 주장은 "수학능력시험대비 교양서의 고전이 없는 마당에 다이제스트식 단행본보다는 고전이 평설된 잡지류가 교양과 학습의 양측면에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독서잡지의 기능과 효용을 설명한다. 「독서평설」의 경우 정기독자가 현재 3만명에 이르며, 올 12월 초에는 「중학 독서평설」을 창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타 독서잡지들도 현직교사 정기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잡지사측은 전한다.

학교영업 대신 엄청난 광고공세 이뤄져

또한 전·현직교사들의 교양서 집필도 부쩍 늘었다. 전직교사란 '참교육운동'을 벌였던 해직교사들, 입시위주의 교과서 암기식 교육을 탈피해 개성과 창의력을 특히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교육론이 제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참고서 및 교양서 집필진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현직교사의 경우는 수학능력 시험 실시 발표 이전부터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교과서 내용 분석이나 교재개발 등 연구활동을 벌였던 '교사모임'의 성과물을 차례차례 내놓고 있다. 그밖에 소장학자들의 모임인 '생활과학연구회'나 앞서 언급된 '신나는 과학을 만나는 사람들'에서도 본격적이고 수준 높은 과학교양서를 연이어 출간, 일선교사들의 추천목록에 어김없이 등장해 그 목록을 갖고 서점을 찾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각급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출판사의 영업전략도 크게 바뀌었다. 채택료 시비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학교와 교사 상대의 영업을 규제하는 탓도 있지만, 광고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참고서와 교양서가 출간되는 바람에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법인 것이다. 그에 따라 줄속출판물이 광고의 효과를 만끽하기도 하고, 광고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좋은 책이 매장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관련출판사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이다. 현직교사들은 정작 "제도는 바뀌어도 학교교육 과정은 예전 그대로이므로 수업활용도는 전무하다"고 고백하는 형편인데도, 바뀐 제도에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세한 정보를 담은 추천도서목록을 작성해 광고의 '거품효과'를 막아주기를 원하는 요구도 크다.

올해 시행된 여러 교육제도는 일단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여러 교과목을 광역화시켜 통합교과서적 소재를 활용해 교과서 안팎을 가리지 않고 사고력을 평가하므로 그만큼 평소의 독서가 중요해진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교양서 판매부진의 원인을 암기식 입시교육에서 찾던 출판계로서는 전반적인 호재를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참고서를 대체할 만한 '새 참고서' 및 교양서 개발에 부심하는 출판사들의 노력도 엄청나다. 특히 교육부에서 진행중인 통합교과서가 발표되면 참고서와 교양서의 구별이 명백해질 것인바, 참고서시장과 교양서시장 규모의 우위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중식 기자